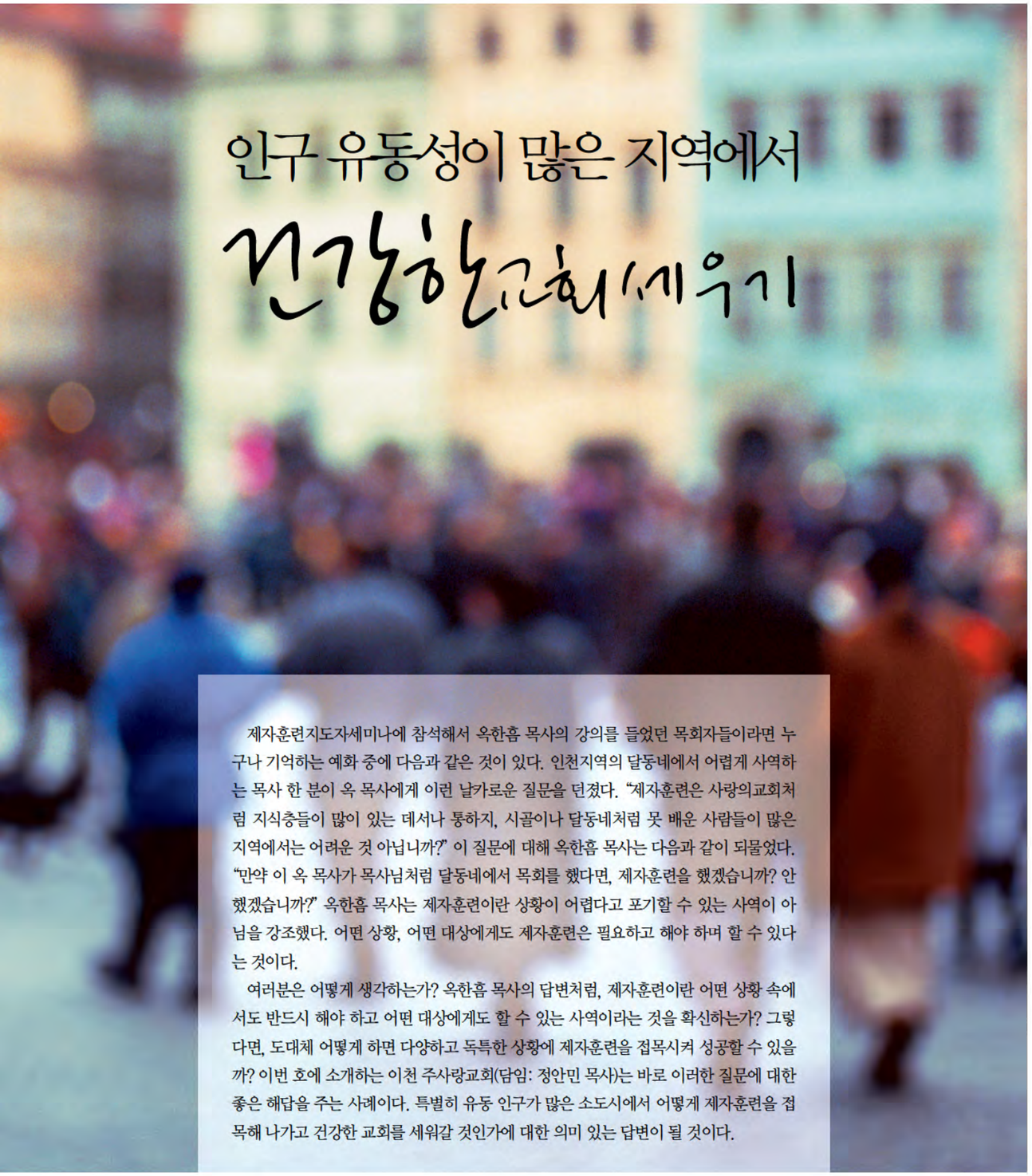

인구 유동성이 많은 지역에서 건강한 교회 세우기

제자훈련지도자세미나에 참석해서 옥한흠 목사의 강의를 들었던 목회자들이라면 누구나 기억하는 예화 중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인천지역의 달동네에서 어렵게 사역하는 목사 한 분이 옥 목사에게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제자훈련은 사랑의교회처럼 지식층들이 많이 있는 데서나 통하지, 시골이나 달동네처럼 못 배운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해 옥한흠 목사는 다음과 같이 되물었다. "만약 이 옥 목사가 목사님처럼 달동네에서 목회를 했다면, 제자훈련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옥한흠 목사는 제자훈련이란 상황이 어렵다고 포기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님을 강조했다. 어떤 상황, 어떤 대상에게도 제자훈련은 필요하고 해야 하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옥한흠 목사의 답변처럼, 제자훈련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해야 하고 어떤 대상에게도 할 수 있는 사역이라는 것을 확신하는가?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다양하고 독특한 상황에 제자훈련을 접목시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번 호에 소개하는 이천 주사랑교회(담임: 정안민 목사)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좋은 해답을 주는 사례이다. 특별히 유동 인구가 많은 소도시에서 어떻게 제자훈련을 접목해 나가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의미 있는 답변이 될 것이다.

1. 개척: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개척하다

주사랑교회를 취재해도 되겠느냐는 전화에, 정안민 목사는 한사코 인터뷰를 고사했다. "주사랑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는데, 특별하게 이야기 나눌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뭘 했다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몇 번에 걸친 이런 줄다리기 끝에 겨우 허락받은 인터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주사랑교회를 세우셨는지를 들을 수 있었다.

"그날이 96년 11월 17일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이 지역을 지나가는데, 불현듯 마음속에 이곳에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는 강한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당시는 정 목사가 사랑의교회 부목사로 시무하다가 교회의 배려로 안식년을 하면서 미국 풀러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온 지 6개월이 채 안 되었을 때였다. 정 목사는 유학을 보내 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더 열심히 섬겨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몇몇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고도 거절한 터였다. 그래서 갑자기 생긴 이 마음을 처음에는 수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단다. "하지만 환경이 좋은 교회에 청빙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 당시만 해도 시골에 불과했던 이 지역에서 개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 그건 저의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부담인가를 고민하던 정안민 목사에게 하나님은 재차 꿈으로, 성경으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확신이 들자, 옥한흠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옥 목사님은 당연히 반대를 하셨지요. 전혀 연고도 없는 곳에 그것도 갑자기 개척하겠다고 허락해 달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척할 만한 곳이 있는지 장소를 물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장소가 없었다. 그런 상황을 듣고 옥 목사는 다시 개척을 만류하며 잠시만 더 사랑의교회에 남아 있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어디서 나온 용기인지 정 목사는 옥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자기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그곳에서 개척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상황이 좋지 않다고 중도에 포기해 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사용하시겠으며 성도들이 어떻게 저를 존경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옥 목사도 정 목사의 결심에 손을 들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97년 1월 1일에 조그만 상가의 2층 38평을 빌려서 주사랑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2. 성장: 제자훈련과 전도로 교회가 성장하다

개척을 한 후에 정 목사는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내렸다. 개척 후 1년 동안은 주일학교를 개설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다. 대신 주일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둔 성도들에게는 1년 동안만 다른 교회로 아이들을 보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왜 그랬을까? "만약 공간도 협소한 장소에서 주일학교를 하면, 주일학교도 제대로 안 되고 예배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사람이 세워지기 전에 사역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제자훈련 철학 때문이었지요."

정안민 목사

주일학교를 개설하려면, 주일학교에서 봉사할 교사들이 필요했다. 그래서 대개의 개척교회에서는 사람들을 훈련시키지 않은 채 교사로 임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람을 온전케 한 후에 사역을 맡기라는 옥한흠 목사의 철학 밑에서 훈련받은 그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현실 때문에 원칙을 양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첫 번째 제자훈련은 전통적인 예배 중심의 교회만 다녔던 훈련생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들의 마음속에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신은 누구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생기자, 그들 안에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섬김의 열정이 일어났다. 무엇인가 이 열정을 쏟아부을 곳이 필요했다. 하지만 개척교회이다 보니, 그들이 섬길 사역들이 아직 계발되지 않은 터였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전도였습니다. 물론 다른 데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도 있었지만, 개척교회이다 보니 당연히 전도는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훈련받는 사람들을 전도에 투입했습니다." 정 목사와 성도들은 일주일에 주일만 빼고 거의 매일 전도를 했단다. "심지어 모든 성도들에게 112운동이라는 것을 벌였어요." 112운동은 매일 11시와 2시에 창문을 열고 밖을 쳐다보자는 운동이었다. 혹시나 이사 온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훈련과 전도 덕분에 개척교회인 주사랑교회는 첫해

에 197명이 등록하고, 130명이 고정적으로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다. 교회가 보이지 않은 외딴 곳에 있었고, 한 명의 개척멤버도 없이 정 목사 가족으로만 시작했던 교회로서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성장이었다.

하지만 정 목사는 "이러한 성장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저를 개척시키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해의 놀라운 성장은 바로 이 약속의 성취였다고 확신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이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3. 도전: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환경과 부딪히다

이렇게 첫해에 기록적인 성장을 했지만, 2년차가 되면서 주사랑교회가 넘어야 할 환경적 도전도 만만치 않았다. 가장 큰 도전은 인구학적 환경이었다. 이천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토착민이 아니라 외지인이었다. 주사랑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중 10년 이상 이천지역에 살아온 토착민들의 비율은 10퍼센트도 되지 않았다.

인구의 거의 80~90퍼센트 이상이 이천으로 전입된 인구이고, 그들은 2~3년 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해 가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주사랑교회에 출석했던 성도들도 2~3년이 지나면 이천이 아닌 외부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주사랑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허다했다.

"어느 때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허탈했습니다. 지난 개척 8년 동안 통계를 내보니 약 1,400명이 등록했더라구요. 그런데 그 가운데 3년 이상 교회에 남아 있는 성도들은 전 교인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고, 앞으로 3년 안에 이사갈 사람은 60퍼센트 가량 되니 말입니다."

이러한 인구학적 환경은 사회경제적인 환경과 맞물려 있었다. 이천지역은 농사 외에 특별한 공장이 없기 때문에 인구를 유입시킬 여력이 없었다. 근처에 하이닉스반도체공장이 있지만, 반도체공장의 특성상 취업률을 높여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별로 없었다. 당연히 대부분의 주민들은 자영업을 하거나 조그마한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이천지역이 상수도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새로운 공장을 짓기가 어렵다. 그리고 서울에서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대학도시로 전환을 하려고 해도 상수도보호지역으로 묶인 터라 2년제 대학만 허가가 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 이천 인구가 18만 명 정도 되는데, 2003년도 한 해 증가된 인구가 5천 명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면 자연증가율도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죠. 이렇게 척박한 상황에서 주사랑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결국 정 목사는 외부로 나가는 유출 인구는 있어도 유입 인구는 거의 없는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해야 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 목사는 옥한흠 목사의 말대로 제자훈련을 하는 데 자신의 모든 진액을 쏟았다고 했다.

그런 결과 주사랑교회는 지속적인 성장을 했다. 매년 30~40명씩 성도들이 늘어나서 2004년 12월에는 청장년 347명, 주일학교 240명의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주사랑교회가 인구학적, 사회경제학적 난관을 뚫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4. 응전(1): 환경을 교회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다

지속적인 성장의 비결에 대해서 묻자, 정 목사는 "성장을 추구하지 않았던 것이 성장의 비결이 된 것 같다"고 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사실 옥 목사님의 부교역자로 섬기며 오랫동안 배운 저로서는 제자훈련 외에 다른 목회를 생각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자훈련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사랑의교회에서 섬기면서 제자훈련이야말로 사람을 세우는 가장 성경적이고 실제적인 목회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제자훈련을 접목하기 위해 몸부림쳤고, 그래서 지금까지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 목사가 제자훈련을 해 온 데에는 남다른 목적이 있었다. "제자훈련을 하는 목회자들은 모두 사람을 세워 동역하는 것을 목회의 목표로 삼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는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대로지요. 하지만 저는 제자훈련을 하는 목적을 다른 데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세워서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은 주사랑교회에게만 주신 독특한 비전입니다."

사람을 세워 파송하라는 주사랑교회의 독특한 비전은 바로 이천지역이 지닌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주사랑교회의 개척 이후 열심히 제자훈련을 시켜서 어느 정도 성숙했다 싶었는데, 이사를 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아파했고 울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훈련시켜 사역도 위임하고 싶은 것이 담임목사의 기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되었다 싶으면 이사를 가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훈련시켜 놓으면 또 떠나버리니, 얼마나 낙심이 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중에 정 목사는 이런 상황이 목회의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주사랑교회에 주신 독특한 비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후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을 보면서,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꾼을 보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파송하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하는 목회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된 거지요. 그런데 파송하려면 충분히 훈련을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제자훈련에 더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제 주사랑교회 성도들 안에는 성도들을 훈련시켜 파송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인식이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한다.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이 분명한 사명을 충실하게 완수할 생각입니다." 정 목사의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목회의 한계는 목회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의 기회일 뿐'이라는 격언이 떠올랐다.

주사랑교회가 처한 독특한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상황은 더 이상 목회의 제약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주사랑교회에 주신 독특한 사명이었다. 그런 면에서 목회적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호소하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주사랑교회의 사례가 구체적인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다.

5. 응전(2): 조급함을 버리고 눈높이를 맞추다

정 목사의 첫 번째 제자훈련은 사랑의교회에서 배운 대로 엄격한 규칙에 따라 진행되었다. 하지만 현장이 달랐고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정 목사가 기대하는 만큼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조급해졌다. 그러자 정 목사는 자꾸 훈계를 많이 하는 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조그만 경험이 이런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어머니가 집 앞에 있는 조그만 밭에 팥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어떤 땅에서는 떡잎이 다 나왔는데, 유난히 한 곳에서는 떡잎이 다 안 나왔어요. 저는 그쪽 팥 씨는 다 죽었나 싶었지요. 그래서 삽으로 그 부분을 한번 파 보았는데, 씨앗이 죽은 것이 아니라 떡잎이 늦게 나와서 미처 땅 위로 올라오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정 목사는 큰 깨달음을 얻었단다.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쯤 떡잎이 나와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씨앗이 심겨진 곳에 따라 씨앗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몰랐지요.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조급함을 버리게 되었고, 제자훈련의 수준 역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정 목사의 눈높이 철학은 무엇보다 훈련생의 선발에 적용되었다. "2~3년 정도면 이사를 갈 확률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사랑의교회에서처럼 이런저런 양육 프로그램을 거친 다음에 신청을 받고 인터뷰를 해서 훈련생들을 선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 목사는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라도 양육의 수준과 사역 경험을 고려해서 제자훈련생으로 바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두 번째로 제자훈련의 커리큘럼에도 눈높이 철학이 적용되었다. "저는 개척한 후 사역훈련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제자훈련에다 사역훈련을 시키면 모두 2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훈련만 받다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 목사는 지도자를 계발하는 양육 프로그램을 2년이 아닌 1년으로 단축해 새롭게 짰다.

인구 이동 비율이 큰 이천지역에서 교회개척과 함께 제자훈련을 시작했던 정안민 목사는 제자훈련을 했던 교인들이 환경적 요인으로 자주 떠나 실망도 했지만, 이젠 **파송**하는 제자훈련 목회자로 사명감을 갖고 더욱 매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과연 제자훈련이 제자훈련다워질 수 있을까? 혹시 그 내용과 결과가 부실하게 되지는 않았을까? 다행히 인터뷰를 하기 전 주사랑교회 평신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로는 제자훈련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왔다.

하지만 정 목사는 긴장감을 가지고 훈련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저는 제자훈련이 끝난 후에 모든 훈련생들을 지도자로 파송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로 파송한 수료생들에게 지속적인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사랑교회만의 독특한 제자훈련은 착실하게 정착되고 있었다.

6. 응전(3): 수평적 리더십을 지향하다

주사랑교회가 환경적인 제약을 뛰어넘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했던 또 하나의 비결은 정 목사가 추구했던 리더십 스타일에 있었다. 그것을 정 목사는 '수평적 리더십'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수평적 리더십을 추구하게 된 것은 제자훈련 철학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천지역이 인구 유동성이 심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연령층이 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만큼 당회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모든 의사 결정이 저에게 집중되게 되고 제가 많은 일을 혼자 다 처리하다 보면 쉽게 탈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컸습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자신이 맡은 사역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부족하다 보니 제가 일일이 간섭할 수밖에 없었죠. 그럴수록 수직적인 관계가 되어, 오히려 성도들을 완전히 수동적인 사람들로 만들겠다는 염려가 생기더라구요. 이것이 제가 수평적 리더십을 지향하게 된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정 목사의 수평적 리더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사되고 있을까? 무엇보다도 정 목사는 35개의 사역팀에게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을 주고 있었다. "각 사역팀들은 자신들 스스로 사역에 대한 기획을 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을 합니다. 물론 저에게 보고를 하고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조정도 하게 되지만, 일차적으로는 자율성에 맡기는 거지요."

직분자를 세울 때도 수평적 리더십이 적용되고 있었다. 주사랑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 임명 방식보다는 '자원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본인이 스스로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굳이 막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해마다 서리집사의 선발은 임명제가 아니라 본인이 먼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사랑 교회 안에는 팀장, 교사, 순장 등의 평신도지도자들로 구성된 '평신도사역협의회(이후 평사협)'가 조직되어 있다. 이 평사협을 통해서 평신도지도자들은 사역과 섬김을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전략도 짜고 실행도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평사협은 정 목사가 추구하는 수평적 리더십의 가장 명백한 실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수평적 리더십을 추구하게 되면, 이것을 민주형 리더십으로 오해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부정하는 반교권주의로 흐르지는 않을까?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교회 전체의 철학과 방향까지 제가 양보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운영의 철학과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담임목회자에게 주신 영적 권위와 직결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저의 수평적 리더십을 세속적인 민주적 리더십과 혼동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신도 입장에서 수평적 리더십과 민주적 리더십을 제대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정 목사는 "그렇다고 수평적 리더십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수평적 리더십이 성경적으로 옳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효과적이라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오해나 어려움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으며, 또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연한 각오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주사랑교회가 가능했을 것이다.

7. 응전(4): 로뎀하우스 사역을 준비하다

지난해에 정 목사는 8개월 간의 안식년을 보내고 돌아왔다. 개척 후에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했던 정 목사에게 성도들이 허락해 준 고마운 선물이었다. 안식년을 보내기 전 정 목사는 평신도지도자들과 함께 로뎀 사역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로뎀하우스 사역이란 일종의 영성 공동체훈련을 하는 사역입니다. 로뎀하우스에 입소한 사람은 하루 중에 일정기간 동안 침묵을 통하여 자기 성찰의 시간과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특별 영성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뿌리깊은 영성을 배우고 공동체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예수원처럼 영성훈련을 위한 생활시설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사역이 아니라 공동체 훈련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 안에서는 제자훈련을, 그리고 로뎀하우스에서는 공동체적인 영성훈련을 함으로써 주사랑교회만의 독특한 모델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이런 공동체훈련 사역을 구상하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정 목사는 "이것 역시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환경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목회를 하느냐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의교회에서는 충분한 양육 기간을 거쳐서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받고 평신도지도자가 되지만, 주사랑교회로서는 그럴 만한 여유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 훈련사역이 필요했던 거지요."

정 목사는 제자훈련을 마치고 사역훈련을 하지 못한 채 평신도들을 파송하다 보니 평신도들끼리 팀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실 교회 내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가장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존의 제자훈련에 이 공동체훈련을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지요." 정 목사는 앞으로 이 사역의 커리큘럼은 예수전도단의 DTS 사역과 뜨레스디아스(Tres Dias) 사역을 보완하여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사랑교회는 정 목사가 안식년을 맞아 떠나기 전,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로뎀 사역을 위한 시설 부지를 구입했다. 그 부지에는 지금 조그만 집 한 채가 있는데, 현재 그 집을 '로뎀하우스'라고 부른다. 정 목사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로뎀하우스에 들러 설교도 준비하고 미래의 공동체 훈련사역을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정 목사의 기대와 확신을 보면서 이 로뎀사역이 주사랑교회와 같은 비슷한 환경에 있는 교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아무리 부정적인 환경이라도 그것은 긍정적인 사역으로 전환시키는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도했다.

나는 보너스 받고 있는 목회자다

정 목사는 이번 안식년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주사랑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더욱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말했다. "제가 없는 동안에도 주사랑교회는 성숙해졌고 더욱 크게 성장했습니다. 제가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제게 보여 주신 거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정 목사는 사모가 자신에게 입버릇처럼 말하는 이야기가 있다며 귀띔해 주었다. "당신의 그릇은 사실 100명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인데, 당신 손에 지금까지 1,400명을 맡겨 준 것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붙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환경에 개의치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인 줄 알고 사역하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정 목사의 얼굴이 소년처럼 환하게 밝아졌다. "지금까지 저는 보너스 목회를 한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목회해야지요." 정 목사의 밝은 얼굴처럼 한국교회의 미래도 여전히 밝게만 보였다.

〈송정헌 목사〉